

지역 메아리



박성일 완주군수 경찰청 감사장 받아

박성일 완주군수가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성일 군수는 완주경찰서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 날 행사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박 군수는 민선6기 취임 이후 완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둔산파출소 개소에 힘을 쏟았다.

파출소 신축 관련 예산 4억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난 8월 둔산공원 일원에 70평 2층 규모로 둔산파출소를 개청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장화교회, 교월동에 햄살기막

김제시 교월동 장화교회(목사 임병호)는 20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햄살(10kg) 24포(240kg)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올해로 설립 34주년을 맞이한 장화교회는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과 다문화가족 지원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맞춤형복지 방문상담을 통해 유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쌀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후원자를 모색하던 터라 더욱 고마운 기부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월 경로당 자장면-day 운영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승환)가 매월 경로당 자장면-day를 운영하여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백구면 내가전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짜장면을 대접하고 훈훈한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집으로 정성 가득한 자장면을 배달하여 다가오는 겨울을 훈훈하게 맞이하는 등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인구, 민선 6기때 큰 폭 ↑

9월말 9만 6187명 기록 8158명 증가... 혁신도시 조성 등 요인 작용 풀이돼

완주군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민선6기 들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완주군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해인 1994년부터 올 9월까지 인구 변동을 분석한 결과, 민선6기 때의 인구증가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민선6기 출범 전인 지난 2014년 6월 말 현재 인구는 8만1,029명이었으나, 3년 3개월이 흐른 올 9월말에는 9만 6,187명을 기록하면서 무려 8,158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인구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도, 산단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귀농 귀촌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풀이된다. 여기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과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실제로 완주군 인구는 민선6기 들어 기념비적인 신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2014년 8월에 9만명(9만1,538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12월에는 군 행정 조직에서 국(局) 설치가 가능한 9만 5,000명을 넘어섰다.

민선6기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때는 민선4기(2006~2010년)로, 4년 동안 총 4,277명이 늘어났다.

뒤를 이어 민선5기(2010~2014년)에서 3,523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선 1~3기 때에는 8만3,000명과 8만6,000명에서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적기를 활용해 정주여건 개선, 교육투자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병행했던 것이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며 "삼봉웰빙시티, 테크노밸리 산단 2단계 및 중소기업 농공단지, 복합행정타운 등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완주군 인구도 크게 증가시킬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인센티브 2억원 확보... 농업 6차산업 육성 등 인정받아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다.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위원회가 해마다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7월까지 3차(서면-현장-최종심사)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금번 평가에서 김제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한 벽골제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농촌지리정보 체계 기반을 수범적으로 구축해 온 공을 인정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벽골제권역은 (주)벽골제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지역역량 강화 및 운영자립에 힘써왔으며, 특히 지난해 11

월에는 농식품부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계기로 교육과 농업관광, 사계절 농촌체험이 어우러진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복원 노력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견식 김제시장은 "대한민국 농업1번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교육과 관광이 접목된 에듀-투어리즘 선도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별 특화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보다 더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국제종자박람회 행정지원 최종점검 나서

김제시는 20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이후천 부시장의 주재로 행정지원 최종점검 및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행정지원 최종점검은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국제종자박람회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청취한 뒤, 각 부서장들이 세부지원계획을 보고하면서 진행되었다.

김제시의 행정지원은 크게 행사 전 준비지원과 본 행사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종자박람회의 온·오프

라인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관리, 행사장 주변 제초작업, 박람회장 가로수 정비, 음식·숙박업소 지도 점검 등을 빈틈없이 사전 준비하였고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 및 주차장 관리지원, 교통정체 및 불법 주차차를 대비한 셔틀버스 승강장 운영,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앰블런스를 포함한 응급구호반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백산면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현장보

고를 마무리한 이후천 부시장은 "우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을 이끌고, 나아가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17. 10. 26. ~ 28(3일간) 개최되며, 3ha 규모의 전시포와 주제관, 홍보관, 산업관,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국제종자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 성료

책·평생학습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 만들어

'2017 완주군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1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야외무대 일원에서 '책 사랑! 평생학습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박성일 군수, 정성모 강요진, 박재완 도의원, 송지용 도의원,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 송준호 위원장(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책과 평생학습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

문화회관에서는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의 서평특강을 통해 독서지도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해 쉽게 쓰는 서평교육이 진행됐다.

또 비비를 둘러쥬'의 저자인 권오준 생태동화작가의 북콘서트에서는 '새들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생태강연과 더불어 미술사 이단비씨의 비둘기 미술, 뮤지컬 가수 강요진씨의 '다함께 노래 불러요!', 생태체험 쿠키 만들기가 함께 진행돼 참여 가족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와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중심이 돼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완주에서 마음껏 즐기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 도서관, 읍면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등 지역내 90여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참여해 더욱 풍성한 평생학습 통합축제가 이루어졌다.



완주군,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 수상

완주군이 '2017년 대한민국 SNS(Social Network Service)대상'에서 전북지역 최초로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완주군은 지난 19일 서울LW컨벤션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SNS(Social Network Service)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해럴드 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며, 기업·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대한 활용지수를 측정, 소셜미디어 활용과 소통을 잘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다.

완주군은 콘텐츠의 우수성, 콘텐츠의 스토리텔링화, 네티즌들과의 활발한 소통, 이벤트 개최, SNS 이용자 수, 잠재고객 발굴을 위한 노력 등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SNS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관심하고 있는 국정시책과 각종 교육·행사 정보,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집중해 왔다.

특히 차별화된 사진과 영상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상식에 참여한 고재욱 완주부군수는 "SNS를 통한 군민 공감과 소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전북지역 군단위에서 최초로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진안고원' (Jin-an Goryeon) featuring fresh produce like cabbages and mushrooms. Text includes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and '장~ 보러 오세요'.

Advertisement for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Jin-an Goryeon Clean Agricultural Products Sales) showing a busy market scene with people and large stacks of produ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